

기관 협착성 병변의 수술적 치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박승일 · 유양기 · 박창률 · 김동관 · 손광현

목 적: 기관 협착의 치료에는 주기적인 확장, 기관 내시경을 통한 협착 조직의 제거, T-tube 삽입 등의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술을 통한 기관 절제 및 재건술이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상기도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결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에서 기관 협착성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42례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기관 협착의 원인은 postintubation stenosis 28례, 기관에 발생한 원발성 기관종양이 9례(양성 3례, 악성 6례), 기관내 결핵 2례, 외상 2례, 그리고 갑상선암이 1례였다. 기관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한 환자 36례 중 28례의 환자에서는 기관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8례의 환자에서는 갑상연골 또는 윤상연골 절제가 동반된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한 8례중 3례에서 후두분리술(supralaryngeal release)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기관의 길이는 평균 3.6 ± 1.0 cm였다. 기관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한 6례 중 4례에서 T-tube를 삽입하였고, 1례

는 반복적인 기관내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였으며, 1례는 선양낭선암으로 암종의 기관 침범 범위가 길어 절제는 불가능 하였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기관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한 36례의 환자중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27명(75%)이었고, 수술 직후 일부 문합 부위에 육아종 증식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후 호전된 환자는 5명(13.9%)으로 전체 환자중 88.9%에서 수술후 양호한 기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경미한 육아종 증식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5례 외에 기타 합병증으로는 반복되는 육아종 증식을 보이는 환자가 2례, 창상감염 1례, 문합부 dehiscence 1례, 운동시만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는 재협착이 1례, 수술후 반복적인 기도 흡인으로 retracheostomy를 시행한 환자가 1례 있었다. 기관 절제술과 직접 관련된 30일 내의 조기 사망은 없었고, 수술전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았던 환자에서 수술후 흡인성 폐렴으로 1례, 심근경색으로 1례, 만성 신부전이 있었던 1례가 사망하였다.

결 론: 기관 절제 및 재건술은 기관 협착성 병변에서 낮은 사망률과 유병율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기관 협착성 병변의 치료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